



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방학을 위한 학교폭력예방 안내

우)15010 경기도 시흥시 해송십리로 472-30, TEL: 031-8063-2902

제 2022-155호
발송: 2022.7.19.
담당: 진로인성부

학부모님, 안녕하십니까? 가정에 늘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.
드릴 말씀은, 학생들의 건강하고 안전한 여름방학을 위한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예방 교육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고자 합니다. 즐거운 여름방학 기간 동안 학생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하여 학교폭력예방교육의 협력 지도를 부탁드립니다.

● 학교폭력 및 성폭력 피해 예방요령

- 밤늦은 시간에 길거리에서 배회하지 않는다.
- 모르는 사람에게는 문을 열어 주지 않는다.
- 외출 시 부모님께 행선지 및 전화번호를 꼭 알리고 귀가 시간을 잘 지킨다.
- 치한이라 판단되면 가까운 상점이나 문 열린 집에 뛰어 들어가 도움을 요청한다.
- 보복의 두려움이나 수치스러움을 갖지 말고 경찰이나 학교에 자세하게 신고한다.
- 성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혼자서 해결하려 하지 말고 부모님이나 선생님,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다.
- 너무 값비싼 물품이나 과다한 현금을 몸에 지니고 다니지 않는다.
- 폭력 직면 시 큰 소리로 말하며 주위 사람들에게 알린다.
- 싸움 현장 주변에서 배회하거나 싸움에 개입하지 않는다.
-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구석으로 서지 말고, CCTV 앞쪽이나 번호판 앞에 서서 만일 발생할 수 있는 상황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한다.

● 사이버폭력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

- 나는 친구를 뒤에서 헐뜯하지 않습니다.
- 나는 카카오톡, 페이스북 등에서 누군가를 암시하는 비방하는 글을 쓰지 않습니다.
- 나는 위와 같은 상황이 내 주변에서 발생할 시 절대 동조하지 않고, 그 자리를 피합니다.
- 나는 누군가에게 서운한 것이 생기면 문자로 말하지 않고, 얼굴을 보고 직접 이야기해서 문제를 해결합니다.
- 문제 해결이 어려우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.

↪ <뒷면> 참고

● 장난일까요? 학교폭력일까요?

- ☑ 친구의 생명을 위태롭게 하는 위험한 행동(예) 기절 놀이)은 장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.
- ☑ SNS, 인터넷 등 사이버상에서의 모욕과 괴롭힘은 장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.
- ☑ 상대방을 의도적으로 놀리고 심부름 등을 강요하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.
- ☑ 성적인 말과 행동을 하고 친구의 몸을 함부로 만지는 것은 장난이 아니라 폭력입니다.

☞ 친구에게 신체·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는 모두 학교폭력입니다. 친구 간의 사소한 괴롭힘과 장난이라고 여기는 행동도 학교폭력이 될 수 있습니다.

● 학교폭력, 신고해주세요

(전화) 전국에서 국번없이 117

(문자) #0117

(인터넷) 안전 Dream(또는 검색어 117)으로 신고

(방문) 117센터에 방문하여 신고·상담

●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보호자가 함께 해주세요

- 자녀에게 학교폭력이 무엇인지 인식할 수 있도록 알려줍니다.
- 평소 가정에서 상대를 존중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.
- 자녀의 학교생활과 또래관계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대화합니다.
- 외출 시 장소와 만나는 사람 등을 가족에게 알리도록 지도합니다.
- 언제든지 도와줄 수 있는 든든한 지지자(교사, 보호자)가 있음을 알려줍니다.

(출처: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폭력예방을 위한 학부모 소식지)

여름 방학을 맞이하여 학생들의 실내·외 활동이 활발해지는 시기입니다. 일부 학생들의 사소한 장난이나 호기심이라고 생각하는 행동이 다른 학생에게는 고통과 아픔으로 느껴질 수 있으니 건강한 또래문화 형성을 위해 학생들 스스로 앞장서 주길 바랍니다. 더불어 학부모님들의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

2022년 7월 19일

배곧누리초등학교장